

보도시점

2025.2.27.(목) 17:30

배포

2025.2.27.(목) 15:00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방향 수립

- '25~'27년간 총 14.1조원 승인 추진
- 공급망 협력 분야 및 아프리카 지원 확대
- 초대형·고부가사업 발굴·지원, 지원대상·방식 다변화

기획재정부는 제152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서면)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2025년~2027년 중기 운용방향 등**을 2.27.(목) 의결하였다.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

** 제152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안건 :

①2025년~2027년 중기운용방향, ②2024년 결산보고서, ③자산운용지침 개정안

국제적인 개발재원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향후 3년간 총 14.1조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과 함께 중점분야로 지정하고, K-파이낸스 패키지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사업을 적극 뒷받침한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유지하되,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앞으로도 개발 효과가 높고 지원의 가시성이 높은 초대형·고부가가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력 전대차관, 보증을 올해 새로 도입하는 등 기금의 지원대상과 방식을 점차 확대하고 다양한 개발수요에도 대응한다.

이와 함께, 사업 완공 이후 운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외경제협력 기금 사업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특히 예기치 못한 개도국의 세금 부과나 물가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 정비와 수원국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서영환 (044-215-8770)
	개발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15-8771)

